오페라, 영화 연출과 무대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영화(오페라) 리골레토와 오페라 춘희 중심으로

채연희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무대의상 디자인은 연출자와 무대 디자인과 같이 대본을 연구하고, 스토리, 분위기, 성격적 특성, 시각 효과, 환경, 지리, 시대와 계절 등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디자인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같은 오페라 작품도 연출하는 의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요소 중에 무대의상 디자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 대하여 문헌연구와 시각자료를 고찰하고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무대 의상 디자인을 위한 학문적 배경을 마련하는데 있다. 무대의상은 크게 패션쇼, 영화, 연극, 오페라, TV, 무용, 상업광고 그리고 특별한 행사(아이스 쇼, 나이트클럽 쇼, 서커스, 익살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오페라의 무대의상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1955년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Lucchino Visconti가 연출한 춘희와 1987년 English National Opera에서 Jonathan Miller가 연출한 리골레토, 1983년 Jean-Pierre Ponnelle가 감독한 영화 리골레토이며, 연구 방법으로 첫째 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 중 연출의도가 원작과 다르게 시도되어 호평을 받은 작품인 춘희의 무대의상 디자인을 원작의 무대의상 디자인과 문헌적으로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원작의 시대적 배경과 장소를 바꾸어 연출한 오페라 리골레토의 무대의상 디자인과 같은 원작을 영화로 만든 영화 리골레토의 무대의상 디자인이 연출 의도에 따라 작품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었던 점을 원작 오페라의 무대의상 디자인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1955년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한 춘희는 19세기 중반이 시대적 배경인 원작과 달리 19세기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연출함으로써 무대의상 디자인이 크리놀린 스타일에서 버슬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원작의 내용이 파리의 고급 매춘부의 사랑과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벨 에포크(Belle Epoch)시대로 바뀐 것이 오히려 세기말에 이른 퇴폐주의 경향을 원작에서 보다 더 강하게 표현 할 수 있었다. 시대적 배경에 불과 반세기 정도 변화를 준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풍요로움에 대한 낙관, 향락 그리고 세기말적 퇴폐주의가 만연했던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사회상이 복식에도 영향을 주어 이 시기 복식 디자인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원작에서의 무대의상 디자인이 크리놀린스타일의 풍성하고 화려한 복식이었던 것에 비해 Visconti 연출의 무대의상디자인은 몸에 꼭 맞아 가슴과 힙을 강조한 버슬 스타일로 세기말적 퇴폐주의를 무대의상의 변화를 통해 잘 표현 해 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오페라 리골레토 원작의 배경이 르네상스 시대의 만토바 지역이었던 것을 현대의 뉴욕 선술집으로 바꾸어 연출하는데 무대의상 디자인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83년의 영화 리골레토는 오페라를 영화화한 것으로 원작에서 리골레토 때문에 딸을 농락당한 몬테로네 백작이 리골레토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을 리골레토 자신이 무대의상을 백작의 것으로 바꾸어 입음으로써 1인 2역을 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실제 이 오페라 공연 중에는 리골레토와 몬테로네 백작은 동시에 무대에 서기 때문에 1인 2역이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무대의상을 바꾸어 입음으로써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무대의상 디자인의 특성을 시간과 장소성에 구애 받지 않는 영화에서는 연출 의도에 따라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많은 의미와 숨겨진 변화를 부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두 오페라의 사례로 오페라, 영화 연출과 무대의상 디자인에 관한 관계를 단정 짓고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무대의상 디자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이해를 위한 다각적 시점과 더 많은 사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